

“공 없어야 근본 성취되고 행 다해야 근원 이룬다”

<16>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의 저자 이통현(李通玄) 거사

당(唐朝)에는 도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당 황실과 같은 종성(種姓: '李')이라는 이유로 중시한 까닭도 있지만, 위진·남북조시기 '불도지쟁(佛道之爭)'을 거치면서 불교 교의가 도교에 소화돼 종교와 철학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남북조 시대 육수정(陸修靜), 도홍경(陶弘景) 등 걸출한 도사들에 의해 도장(道藏)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다시 성현영(成玄英)에 의해 불교의 반야학(般若學)을 완벽에 가깝게 흡수해 도교에 고도의 철학적인 세계가 열린 것도 이유였다. 그러나 중국불교 역시 천태종, 삼론종과 화엄종 등 종파가 출현하면서 교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유·도 양가의 도전에 의연히 대처할 역량을 갖췄다. 이러한 중국불교의 발전에 있어서 거사들의 공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가운데 당대 화엄 교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사가 있었으니, 이통현(李通玄; 635-730) 거사이다.

이통현 거사는 흔히 '이통현 장자(長子)' 혹은 '이장자'로 알려져 있다. <거사전>과 <송고승전> 등에

다. 이 때문에 세상은 거사를 '조백대사(藜柏大士)'라고도 칭했다.

그 후 마씨(馬氏)의 고불당(古佛堂)으로 옮겨 연구를 계속하던 거사는 신복산(神福山) 아래 토감(土衲: 현재의 태원(太原) 수양방산(壽陽方山)의 토감)으로 이주해 <신화엄경>에 대한 논서를 찬술하기 시작했다. 5년이 걸려 완성한 것이 바로 <신화엄경론> 40권이다. 눈을 완성한 후 계속 <약석신화엄경수행차제결의론(略釋新華嚴經修行次第決疑論)>을 찬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원 18년(730) 일설에는 개원 28년) 3월 28일 토감에서 96세로 좌화(坐化)했다. 이후 거사는 송(宋) 화종(徽宗)시기에 '현교묘엄장자(顯教妙嚴長子)'라는 시호를 받았다.

거사의 저술은 이외에 <회석(會釋)> 7권, <약석(略釋)> 1권, <해미현지성비심명론(解迷顯智成悲十明論)> 1권이 현존한다. 또한 <십현육상(十玄六相)> <백문의해(百門義海)> <보현행문(普賢行門)> <화엄관(華嚴觀)> <십문현의배과석략(十門玄義排科釋略)> 1권, <안목론(眼目論)> 1권과 다수의 시부(詩



그림 · 김흥민

제(本際)를 밝힌 것으로, 모든 불(佛)의 원천을 보았다. 그 근본이 됨은 공(功)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행(行)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공이 없어야 근본이 성취되고, 행이 다해야 근원을 이룬다. 본원(本源)은 공이 없어도 능히 연(緣)에 따라 자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毘盧遮那)이다. 본성(本性)이 빛남으로써 지혜가 근기에 따라 응하고, 대비(大悲)로 사물을 제도함으로써 비로자나의 이름이 됐다"고 했다.

여기서 거사의 기본적인 입장이 엿보이는데, 중생들은 '지혜의 바다'에 의지하고 '법신'을 본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불의 본질적인 관건은 '공부와 수행(功)'에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을 알고(知心)' "근본을 요달함(達本)"에 있다는 것이다. 중생과 제불은 본래 같은 근원이고 같은 본체를 지녀 차별이 없어도, 중생과 제불이 따로 있는 까닭은 '정(情)이 생겨 지혜와 멀어지고 생각이 변하여 체가 달라진 것'으로 설정했다.

거사의 입장에 대해 평재정의 <거사전>에는 "신화엄경론의 대요(大要)는 중생의 성품(性)이 바로 제불의 성품임을 밝혔다. 여러석(異) 중생이요, 깨달으면(悟) 부처다. 다만 능히 믿음(信)으로 들어가 발심한다면 문수보살의 이치(理)와 보현보살의 행(行)이 한 순간 전체적으로 증득함(頓印)"이라 평가했다. 이것은 <육조단경>의 "한 생각(一念)이 어리석으면 중생이요, 한 생각에 깨달으면 부처"라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돈오(頓悟)'를 강조하는 것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거사의 화엄론은 직접적으로 선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수선(修禪)과 관련된 거사들의 계보를 확장한 <거사분등록>에 이통현 거사 전기가 실려 있음으로 반증된다.

거사의 화엄론은 한국 불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려 선종의 증중조인 보조국사 지눌(知訥) 선사 선사상에 영향을 미쳐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제창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통현 거사의 <신화엄경론>은 단순히 불교적인 요소만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려서 읽었던 <주역>에 기인한 전통적인 음양설(陰陽說) 등 다양한 중국적 요소들이 내포했다. 이러한 중국전통적 요소들이 오히려 거사의 화엄론이 각광을 받게 한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중국불교를 참다운 중국불교로 자리 매김하도록 했다.

중국 기라성 같은 거사들이 있어서 이통현 거사는 단연 특별한 업적을 지닌 거사로 손꼽힌다. 위진·남북조와 수대(隋代)를 통해 나타난 거사들은 주로 호법(護法)과 교의의 선양에 힘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된다.

당대에 들어 드디어 거사로서 새로운 교의를 제시하는 종장(宗匠)이 출현한 것이다. 이는 물론 전체적인 중국불교의 축적된 역량으로부터 발원했지만, 거사불교에 있어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어려서 '주역' 심취, 중년에 스승 없이 불교 몰입 '화엄경' 연구 몰두... 저술에 중국적 요소 내포

그의 전기가 있다. 거사는 당 황가(皇家)의 자제로 어려서 <주역(周易)>에 심취해 매우 정통했다. 중년에 들어 점차 불교에 몰입했지만, 특별히 스승은 정해두지 않았다. 거사는 <화엄경>에 매료됐었다. 당시 중국에는 두 종류의 <화엄경>이 있었다. 동진(東晉)시기 불타발타라(佛跋陀羅)가 번역한 60권본과 당 성력(聖曆) 2년 실차난타(實叉難陀)가 주역(主譯)하고, 보리유지(菩提流志)·의정(義淨)·법장(法藏)이 조역(助譯)을 담당해 80권본을 새로이 완성한 <신화엄경>이다.

개원(開元) 7년(719) 이통현 거사는 기존의 60권본 <화엄경>을 "제가(諸家)들의 소의(疏義)가 지나치게 번잡해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몇 년을 공부해도 얻어짐이 없다"고 비판하고, 태원(太原)의 우현(孟孫: 현재 산서성(山西省)에 속함) 고선노가(高仙奴家: 자료가 따라 '高山奴家'라고도 함)에서 <신화엄경>을 3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때 거사는 3년동안 단 한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아침 10알의 대추와 잣나무 잎으로 만든 전병 1장만을 먹었

賦)가 있다고 하나 모두 소실됐다.

<신화엄경론>은 거사 입적 후 4~5년 후에 광초(廣超) 스님 등에 의해 필사돼 널리 유통됐다. 선종(宣宗) 대종(大中) 연간(847~859)에 복주(福州) 개원사(開元寺) 지능(志寧) 스님이 80권 <화엄경> 경문 사이에 거사의 40권 <신화엄경론>을 삽입해 120권으로 만들었고, 후에 다시 이를 정리해 <화엄경합론(華嚴經合論)>으로 칭했다. 송대 계환(戒環)의 <대방광불화엄경요해(大方廣華嚴經要解)> 1권은 이통현 거사의 학설을 중심으로 징관(澄觀)의 학설을 보충해 만든 것이다. 또한 이 <화엄경합론>과 관계된 것으로 명대(明代) 이지(李贄)가 <화엄경합론간요(華嚴經合論簡要)> 4권과 방택(方澤)의 <화엄경합론찬요(華嚴經合論論纂)> 3권이 있으나, 모두 <화엄경합론>의 요약본이다. 이로부터 거사의 화엄론이 후대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이 충분히 짐작되며, 거사의 화엄론이 미친 영향을 상세히 논하자면 상당한 분량의 저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능 스님이 편집한 <화엄경합론> 서문에서 "논

에서 밝히는 바는 제가(諸家)의 소의(疏義)와 조금 차별이 있다"라는 것처럼 거사의 <신화엄경론>은 기존 화엄사상과는 차별을 보인다. 그러나 사상 문체에서 "조금의 차별"은 실제 '본질적인 차별'일 수 없다. 이 문제는 전문적 논고로 미루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화엄학설과 가장 커다란 차별점은 바로 화엄을 통해 '지혜(智慧)'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화엄사상이 '법계원융(法界圓融)'에 집중해 '이사무에(理事無碍)' '사사무에(事事無碍)'로 귀결하는 것과 다르게 거사의 화엄론은 '범성불이

(凡聖不二)'와 '동일지혜의 원리'를 강조했다. 범부가 발심(發心)할 때 이미 지방의 제불(諸佛)과 '물이 아닌(不二)'을 강조한 것이다.

<신화엄경론>의 종지를 밝힌 첫 구절에서 거사는 "유정(有情)의 근본은 지혜 바다를 의지하는 것으로 근원을 삼고 있으며, 식(識)을 내포한 부류들은 모두 법신(法身)을 체(體)로 삼는다. 다만 정(情)이 생기 때문에 지혜와 멀어지고 생각이 변해 체가 달라지니, 근본에 요달(了達)하면 정(情)이 없어지고 마음을 알면 체와 합일한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중생의 본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사	충주시	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	회사원	인천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청주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업	부곡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EO	청주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서울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	서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충북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배병연	1967년생	169	대졸	회사	부산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학원강사	대전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울	강충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전북
임태민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손준수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기범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기업	서울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장천석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문운중	1970년생	163	고졸자	기업	서울	정우철	1974년생	175	대학	회사원	충북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	건설사	부산	정호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유준호	1971년생	176	대학	회사원	서울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	진해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정영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회사	경기도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박헌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	서울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인천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도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	대구시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박준규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울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기업	충성군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회사	경기도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김진목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박종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	대구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울	서중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	경기도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주시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박대익	1974년생	177	대학원	영업	충남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경기도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학원실장	평주광역시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